

주임신부: 김대하(사도 요한)
본당회장: 조우호(바오로)
TEL : (905) 545-3004
FAX : (905) 545-7895

연중 시기

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
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. (마르코 6, 4)

미사 시간

미 사	주일 11:30(본당)
	주일 17:30(공소)
평 일	매 주 (화) 20:00
	매월 첫 (금) 19:30
성모 신심	매월 첫 (토) 11:00
성시간	매월 첫 (금) 20:00

성사 일정

고해성사	미사 전, 후
견진성사	2 년에 1 회
유아세례	매월 마지막 주일
혼인성사	6 개월 전 면담
병자성사	병환 중/임종 전

교리 시간

예비자 교리	온 라인
견진 교리	

신심 단체

자비의 모후 Cu	매월 2 주 미사 후
셋별 Pr.	매주 주일 10 시
평화의 모후 Pr.	매주 화요일 18:30
천상의 어머니 Pr.	매주 화요일 11:00
사랑하올 어머니 Pr.	매주 화요일 18:50
바뇌 성모 기도회	매월 1,3 주 (토) 10:00
울뜨레아	매월 1 주(금) 성시간 후



현 참여 가구 수: 45가구 (지난 주 누계: 45가구)
총 약정액: \$110,000 현 모금액: \$86,409 (78.5%)

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.
교구 사이트 (<https://www.oneheartonesoul.ca/give>) 참조 바랍니다.
※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(베드로)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.

본당 소식
◎전례 안내
▶7/ 7(일) 연중 제 14 주일 (본당 11:30, 공소 미사 없음)
▶7/ 8(화) 연중 제 14 주간 화요일 (본당 20:00)
▶7/14(일) 연중 제 15 주일 (본당 11:30, 공소 17:30)
※성수 예식및 7 월 축일자 축하식

◎환영합니다.
키치너 워터루 한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**양현직 사도요한** 주임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 ME 피정 참가로 인하여 오늘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.

◎ **교구청 특별 헌금** :
▶ 은퇴사제를 위한 헌금(7/14)

◎ **St.Andrew Kim 장학금 안내**
▶ 접수기간: 8/25(주일)까지
▶ 수여식: 10/13 각 성당 교중미사중
▶ 후원:천주교 한인 신용조합
▶ 장학금: ▪ 신학생 \$2000
 ▪ 대학생 & 12 학년 졸업생: \$1200
 ▪ 9-11 학년 고등학생 \$500
▶ 문의: 전례분과장 이미란 아네스
※신청서는 본당 카페 주일학교 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<https://forms.gle/hBruMYyuVXfzXXh9A>

◎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

주최	일시및 장소	참가비
예수성심성당	7/27(토) 13:00 Glen Eagle G.C.	\$140 (그린피+파워 카트+중,석식+상품)
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(416.882.8385)	8/12(월) 11:30 Station Creek	\$160 (그린피+파워 카트+석식)
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(문의: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)	8/17(토) 13:30 Glen Eagle G.C.	\$140

◎주보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.

공소 소식
▶ 7 월 공소 축일자. 축하합니다.
7/ 1 - 엄혜영 에스더 7/11 - 김재익 베네딕도
7/20 - 김은정 마르가리타 7/21 - 신승훈 다니엘

단체 소식
▶꾸리아
일시:7/14(일) 미사 후 하상실 12:45

▶복사단회합, 자모회
일시: 7/21(일) 미사 후

천교 식사
7,8 월은 음식 유지의 어려움때문에 구역식사가 없습니다.
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

우리들의 정성

지난 주 정성 (미사 참례자: 134 명)			
주일헌금	\$1435	교무금	\$20
감사헌금	\$0	성전건립	\$0

삼종기도
○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
●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. <성모송>
○ “주님의 종이오니
●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!” <성모송>
○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
●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. <성모송>
○ 천주의 성모님,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
●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.
十 기도합시다.
하느님, 천사의 아웸으로
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
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
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
저희에게 내려 주소서.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◎ 아멘.

◎7 월 본당 세례 축일자(31 명)

7/ 1 아론(송찬) 에스더(김건희), 에스텔(홍연아)
7/ 3 토마스(민천식, 최명근, 이정환)
7/ 5 대건 안드레아(이천우, 이건희, 오유성)
7/ 7 베테딕토 11 세(조은혁)
7/ 11 베네딕토(김영웅, 정철)
7/ 12 베로니카(민경희, 최아현)
7/ 21 다니엘(김민후, 유서진, 이승익, 이승규)
 루시아(김순예), 뽀락세다(강영순)
7/ 22 마리아 막달레나(신미숙)
7/ 24 크리스티나(석효정)
7/ 25 제임스(제임스, 장대용, 조원형)
 야고보(조광학)
7/ 26 안나(김갑진, 이교성, 배혜란. 최다인)
7/ 29 베아트리체(조하늬)

전례봉사자

날짜	해설	복사	독서자	봉헌자
7/7	이인선 쟈마	최두원 스테파노 이준서 사도요한	1 독서: 김한욱 에릭 2 독서: 강원 요안나나	권희진 요안나 김영미 스텔라
7/14	김의수 안드레아	최다인 안나 최아현 베로니카	1 독서: 김성수베드로 2 독서: 이재순 데레사	김한욱에릭 강지원요안나
7/21	박규혜 카타리나	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	1 독서: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: 박혜영 수산나	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

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

최현욱 베네딕토 신부
구봉 성당 주임

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헛트의 ‘세상의 빛’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(예수님)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. 그런데 그 그림에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. 손잡이는 오직 문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.

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.

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그림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예수님이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향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.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.

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참삶의 길, 참행복의 길,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전해준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우리들과 아무리 함께 하시려고 하더라도, 우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,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,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. 또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십니다. 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을 떠도는 말이 될 것이고,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결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. 결국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.

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, 내 안의 손잡이를 돌려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,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“보라,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.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,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.(묵시 3,20)



대철주보

<http://cafe.daum.net/stpeteryu>

한대와 경청의 해

2024 사목지침

St. Peter Yu Catholic Church/ 6 Heath St. Hamilton ON L8H 3Y5



연중 14 주일

(2024. 7. 7.)

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2,2-5

화답송 시편 123(122),1-2 ㄱ.2 ㄴㄷㄹ.3-4(◎ 2 ㄴㄷ)



후렴.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,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.

○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,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. 보소서,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,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. ◎

○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,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,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. ◎

○ 자비를 베푸소서, 주님,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.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,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,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. ◎

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. 12,7 ㄴ-10

복음 환호송 루카 4,18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.◎알렐루야.

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6,1-6